

특별기고



정기연
前 영암신북초등학교교장

불조심 강조의 달과 소방의 날

소방의 날 유래를 알아보면 일본강점기에는 12월 1일을 방화의 날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각종 행사를 개최했고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불조심 강조기간이 정부에서 설정하여 운영되었고, 불조심 강조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에는 지역 단위 행사이기는 했지만 소방의 날이라 하여 유공자 표창, 불조심 길거리 캠페인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1963년부터 내무부가 주관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소방의 날 행사가 거행되어 오다가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여 법정 일로 정했다. 소방의 날은 1963년 제1주년으로 환산하여 1991년 소방의 날을 제29주년 소방의 날 행사를 했다. 따라서 2018년인 올해 11월 9일은 56주년 소방의 날 행사이다. 이날 전국 각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불조심 강조와 소방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이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한 배경은,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 입동 기간에 불을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과 보안이 필요하고 불조심에 관한 홍보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적 배경에서 국민들이 불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안전 체험장 행사로써 소방공무원 및 소방업무종사자 사기 진작은 물론 국민들의 소방안전의식을 높이는 종합적 불조심 안전의 달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해마다 크고 작은 많은 화재와 산불 현장을 직간접적으로 볼 때마다 불에 타서 흔적마저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화재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집 우리 직장 우리 마을 일이라 생각할 때, 불조심은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준다. 특히 건조기인 겨울철에 소방시설이 없는 등산할 때는 각별한 불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

불의 발견과 이용은 인류가 원시 동물 사회에서 인류 문명사회로 발전하게 한 원동력이었으며 불은 물 기기와 더불어

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문명사회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이처럼 불은 인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잘못 사용하는 부주의에서 오는 화재는 해마다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며, 불이 났을 때마다 화재를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 소방 안전시설 미비와 점검의 방심에서 오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어 불조심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불조심 강조의 달 설정 취지를 알고 화재 예방의 안전의식을 감지하고, 모든 방화시설을 점검 안전하게 보완하여 올해 겨울에는 화재 없는 달인 11월에는 화재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각 가정, 각 마을, 각 기관에서는 자율 소방대 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소화훈련과 시설점검을 꾸준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불을 잘 사용하는 문명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화재 예방에 힘써 선진국 국민의식을 높였으면 한다.

社說

미세먼지 대책 과감하고 종합적이어야

정부가 9일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차량에 대해서도 강제로 2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달성하기로 했다.

저공해 경유차에 주차로-혼잡통행료 감면을 해주는 '클린디젤' 정책은 폐기했다.

정부가 나름대로 고심 끝에 방안을 내놨지만,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몰려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중국 지방 정부와 협력사업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소비자들의 경유차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가격 조정방안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도 문제다.

경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정부 부처 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에 들어가지 못한 듯하다. 민간차량 2부제도 간헐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기에 미세먼지 고농도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기 힘들다.

보다 근본적이면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법정부합동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당연히 올바른 지시인데, 인제 와서야 합동기획단을 꾸린다고 하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2014년 리커창 총리가 공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적지 않은 효과를 봤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제철소를 줄였으며, 차량 통행을 통제했고, 석탄광산을 폐쇄하기도 했다.

그 결과,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년 전보다 30%가량 감소했다고 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외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발 미세먼지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어린이가 아파도 미세먼지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다는 부모도 있다. 한 시민은 "숨을 쉴 수가 없고, 눈을 뜰 수가 없다"면서 "당장이라도 이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가 뇌졸중, 심장병, 폐암, 당뇨병, 치매, 우울증, 결막염을 일으키고 태아와 소아의 성장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니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빈틈없이 움직여야 한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구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모아야 한다.

외국은 미세먼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사례를 찾아서 참고해야 한다.

대책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내놓기 보다는 과감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해서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파편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는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없고, 시민 불안도 잠재울 수 없다.

독자기고

자동차 빗길운전 감속방어 배려운행 생활화 해야

촉촉한 가을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 특히 운전이 익숙한 사람에게는 많이 내리는 비 때문에 운전이 힘들 것이다. 비가 많이 내리면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와이퍼를 작동시켜도 보행자나 다른 차들이 쉽게 보이지 않고, 사이드미러를 통해 좌우측에 있는 차들도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핸들이나 브레이크 기능도 저하되며 타이어와 도로의 마찰력이 떨어져서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또한 수막현상(물에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지 않아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이 생겨서 자동차가 갑자기 조종성을 잃게 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는 만큼 빗길 운전에는 안전수칙을 알아야 한다.

다.

첫째, 규정 속도보다 20% 감속 운전을 해야 한다. 빗길에서는 타이어와 노면 간 마찰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평상시에 비해 속도를 최소 20% 감속시켜야 하며, 폭우가 내리거나 장마철에는 40-50% 감속시키는 게 좋다.

둘째, 차간 거리는 2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 역시 위와 같은 논리이다. 셋째, 전조등을 켜야 한다. 전조등은 주로 야간에 켜지만 비가 오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주야간 모두 켜주는 게 좋다. 전조등을 켜면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주위에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어 차랑 간 사고뿐 아니라 보행자 사고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수막현상을 피하기 위해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상 상황에 대비하여 와이퍼, 타이어 등을 미리 점검해 두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다.

/백종희 무안소방서 민원팀장

독자기고

가을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더불어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농기계 보급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사고는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 수확철인 10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시간대별로 귀가 시간대인 오후5시경이 가장 많고 연령대별로 50대 이상이 전체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운전 시 전복이나 추락, 농기계로 신체가 끼이거나, 말려들거나 압착당하는 사고, 도로운행 중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대부분이다.

사고 주요원인은 안전수칙 미준수, 사소한 부주의나 조작미숙, 교통법규 미준수이다.

이러한 농기계사고는 운전이나 조작 시 신체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몇 가지 안전수칙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평상시에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다.

평상시에는 농기계에 대한 철저한 예방점검 및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점검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평탄한 곳에서 점검하고 정기 교환부품은 시기에 맞춰 교

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작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동요령이나 사용법을 익혀야 하며 회전부에 안전을 위해 설치해 놓은 보호커버도 제거해서는 안 된다.

야간에 필요한 전조등 등 등화장치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둘째,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다. 운행이나 작업 시에는 음주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옷이 농기계에 끼이거나 말려들어가거나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헐렁하거나 소매가 긴 옷은 입지 말아야 하고 적절한 모자, 보호구, 안전화 등을 착용해야 한다.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운행이나 작업 중 기계에 뛰어들거나 내려서는 안 된다.

셋째, 이동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다. 기계를 싣거나 내릴 때에는 평탄하고 안전한 곳을 이용해야 한다. 경사지에서 운

행 할 경우 농기계가 가능한 낮은 상태로 최저 속도로 운행하고 후 클러치를 중립에 놓거나 클러치 페달을 밟아서는 안 된다. 경사지에 주차할 경우 받침목을 고여야 하며, 좁은 농로를 운행하거나 농기계가 교차할 경우에는 전복 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로운행 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해 농기계 뒤편에 야광 반사판을 부착해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도록 밝은 색 옷을 착용해야 한다.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편리하고 능률적이지만 잘못사용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한순간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평상시 안전점검 및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주의를 다하여 농기계 사고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종표

화순소방서 농주119안전센터 소방위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124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석빌딩 5층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인 전광선 광고 (062)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편집인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주대리 제갈대중 서울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1-7 에이스테크노8차 140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일한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면은 온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마음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읽는 바른신문

전남도민일보

지역기자안내

Table with 8 columns: 지역 (Region), 직급 (Position), 성명 (Name), 연락처 (Contact), 지역 (Region), 직급 (Position), 성명 (Name), 연락처 (Contact). Lists regional correspondents across various districts like Gwangju, Gwangju, Gwangju, etc.